



행복한 책읽기

이지성 '리딩으로 리드하라' <문학동네>

인문고전 독서의 장점은 길게는 수천 년 짧게는 수백 년 동안 각 시대의 리더들에게 철저하게 검증받은, 인간에 관한 최고의 지침서를 만나는 데 있다. 그래서 어떤 분야보다 특별히 경영에서 진가를 발휘한다. 회사를 세우고, 이끌고, 일을 하고, 고객이 되는 이가 모두 인간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인간을 잘 이해하기 위해 'Reading(문학고전)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을, 철학고전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을, 역사고전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을 해야만 'Lead'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한다. 아인슈타인, 뉴턴, 쇠칠, 에디슨에서 시작해 카네기, 워런 버핏, 이병철, 정주영 등 동서양의 뛰어난 리더들의 사례를 통해 이를 증명한다.

그 중에서 철학고전을 금융에 걸맞게 접목시킨 조지소로스

가 완성된다
고 한다. 이
쯤 되면 고
전 읽기는
곧 자기수행
과 다름없다
고 할 수 있
다.

진정한 경영은 인간을 움직여서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 경영자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쉽게 말하면 인격의 한 부분이 성인의 경지에 올라서야 한다. 그것이 자기수행이다. 자기 수행의 결과는 자기 자신의 '변화'이다. 지식으로는 어떤 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 사물의 본질을 깨뚫는 '지혜'를 얻어야 한다.

지혜는 책속에 있지 않다. 인간의 내면에 존재한다. 인문고전 독서를 통해 내면의 지혜를 알게되며,

'Reading' 해야 'Lead' 한다

의 『금융의 언급술』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나는 철학자의 눈으로 금융시장을 보았고 그 결과 과열과 폭락에 관한 반사심이론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 이론들을 현장에 적용한 결과 주가가 오를 때나 내릴 때나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었다.'

이 정도면 인문고전 읽기가 성공의 지름길처럼 보인다. 하지만 선불리 판단할 일이 아니다. 저자는 인문고전 읽기에 조건을 제시한다. 무조건 읽는 것이 아니라 열정을 다해서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열정은 간절한 사랑이다. 인문고전 저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며 문장 뒤에 숨어 있는 천재의 정신을 만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저자는 구체적인 독서방법을 제시한다. 읽고, 반복하고, 필사하고, 사색하고, 깨달아서 자가 것으로 만들었을 때에야 비로소 독서

서 두뇌 속에 '철학하는 세포'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눈앞의 이익이나 위기へ 흔들리지 않고 입체적이며 혁명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이 모든 출발점은 '인문 고전 읽기'에 있다. 그래서 저자의 독설처럼 들리는 충고는 가슴깊이 되새겨들만 한다.

'인문고전 독서는 나라와 가문과 개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아니 나라와 가문과 개인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뭔가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느끼기거든 낙담하거나 한탄할 시간에 인문고전을 펴길 원한다. 1,000~2,000년 된 지혜의 산삼을 두뇌에게 살피며 먹이기를 권한다.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당신 자신이 혁명적으로 변하고, 당신 가문에 인문고전 독서의 전통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가문에서 배출된 인재들이 우리나라와 세계와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차노희

2009년 광주일보 신춘문예 단편소설 당선

■ 고전음악 감상실 '베토벤'

클래식 불모지 광주에 고전 음악 첫 뿌리내려

독서토론·음악감상회 함께 ... 10월엔 음악회

상실 '베토벤'이 문을 연지 꼭 30년이 됐다.

베토벤은 '필하모니' 등이 문을 닫으면서 오랜 기간 광주의 유일한 클래식 음악감상실이었다. 최근 몇년 사이에 '한울림'(광주시 서구 치평동), '나락'(광주시 서구 학동) 등 클래식 전문을 암각상실이 생겨나기는 했지만 그 가치는 여전하다.

창가에 앉으면 무등산이 한눈에 쑥 들어오는 '베토벤'은 단순한 음악감상실이 아니었다. 클래식 불모지에 고전 음악이 뿌리를 내리게 한 공간이었고, 독서토론, 전시회, 작은 음악회 등이 열리는 문화 창고였다.

또 광주 시민들의 다양한 추억을

한명이었다.

베토벤은 문을 닫을 뻔하기도 했다. 지난 2008년 감작스레 잠세가 올리면서 주인장은 심각하게 폐업을 고민했었다. 이 때 다시 감상실을 일으킨 건, 그곳에서 음악으로 위안받았던 단골 손님들이었다. 소문이 드리자마자 순식간에 '베토벤을 살리기 위한 모임'이 결성됐고, 공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정적인 음악감상 프로그램, 인문학 강좌 등이 만들어졌다.

베토벤은 음악이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클래식 마니아 안철씨다. 금호고교 교사 시절부터 베토벤에서 다양한 음악감상회를 진행했던 그는 명예퇴직 후에는 아예 클래식 전

도사로 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매년 초 1년 프로그램을 이미 확정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모으며 준비를 한다.

매년 빈 신념음악회로 시작하는 '영상음악감상회'(매주 화요일 오후 7시30분), 다양한 고전영화를 함께 볼 '목요영화감상회'(매주 수요일 오후 2시)가 주 프로그램이다. 또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모임을 갖는 '오페라 클래스'에서는 노니제티, 베리니, 베르디 등의 대표작을 감상하며 특히 7월부터 10월까지는 '라인의 황금' 등 바그너의 오페라를 집중조명할 예정이다.

베토벤은 문화 소모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고전음악동호회'(돌째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는 베토벤이 문을 열 당시부터 지금까지 모임을 이어가고 있으며, 노래 배우는 모임(월·화·금 오후 2시)도 이곳에서 만난다. 또 공간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는 이무용(전남 대문화전문대학원교수) 교수 등은 이곳에서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베토벤은 30년을 맞아 10월에 작은 음악회를 연다. 떡과 과일, 차 등 간단한 먹을거리를 준비해 그동안 베토벤을 아끼고 사랑해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도 전할 예정이다.

"16년만에 찾집을 다시 찾은 손님이 지금까지 이곳을 자주 찾고 있다. 고맙다"고 이야기할 때 참 감사하죠. 다른 커리전문점에 비해 낡고 불편한데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이고, 편안히 쉬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고 이야기 해 주시는 분들께도 고맙구요."

주인장 이정숙(57)씨는 "30년이 훌렸다고는 하지만 같은 장소, 같은 환경, 같은 분위기라 그런지 늘 새로운 생각이 든다"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오랫동안 감상실을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의 062-222-8410.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30년 한결같이 ... 시민의 '문화 사랑방'



올해로 문을 연지 꼭 30년이 된 고전음악감상실 '베토벤'은 광주의 문화를 살찌우는 공간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기부한 1000권을 제외한 나머지 4000권을 13일 시장에 내놨는데, 고보문고를 통한 온라인 판매분(2000권)이 5일만인 18일 다 팔려버렸다. 6개월이 지나도 팔리지 않고 남은 책들도 소외계층 기부에 쓰겠다고 했던 계획이 무색한 형편. 그러나 마포라인 유통을 교보문고로 한정한 탓에 광주·전남 지역 서점에서는 구할 데도 없다.

올제족이 지난 1·4·7월 분기별로 내놓은 '올제 클래식스' 1·2시리즈도 모두 동났다. 다만, 책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www.olje.or.kr)를 통해 전자책으로 무료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올제 관계자는 "반응이 너무 뜨거워 지역 독자들을 위해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고민"이라며 "오는 10월 3~4종 정도 책을 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제는 '계립유사'에 실린 순우리말로 '내일'을 뜻한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디자인비엔날레 방향 모색

19일 무등파크호텔서 워크샵

광주비엔날레재단은 19일 무등파크호텔에서 '2013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산업화 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샵'을 열고 디자인비엔날레의 지역 산업연계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내년 디자인비엔날레 주제로 사실상 확정된 '거시기(것이기) 머시기(벗이기)' 의미를 비롯, 주제에 맞는 전시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디자인비엔날레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광주디자인센터가 디자인비엔날레 공동 주관 기관으로 참여해 어떠한 방식의 산업화 가능성을 모색할지도 논의될 예정이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올재' 구할곳 어디 없나요

권당 2900원 '올재 클래식스' ... 전자책 무료 제공



반응이 폭발적이다. '지혜 나눔'과 '공의 실천'이라는 취지를 내걸고 판매된 2900원짜리 고전 5권이 일주일도 안돼 온라인 판매 분량이 모두 팔렸다.

인쇄값만 권당 5000~6000원이 넘

'올재 클래식스'라는 이름으로 내놓은 파스칼의 '팡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유수원의 '우서', 최한기의 '기족체의', '한글중증·대학' 등 동서양 고전 얘기다.

책 표지에 쓰이는 제호는 한글 팬리그라피(손글씨)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솔통 대표 강병인씨가 재능 기부로 참가했다.

이렇게 해서 책마다 5000권을 찍어

는 상황에서 2900원이면 '횡재'한 기분이 들 정도로 파격적 가격. 영국의 한 출판사는 1·2·3권으로 고전을 판매한 데 착각, 2000원대 가격을 책정했다.

기업 등 여러 곳에서 도움을 준 것 도 2900원이란 가격을 가능하게 했다. 이번에 출간된 5권은 삼성, 현대가 출판비용을 댔다. 교보문고는 유통지원을 맡았고 번역자와 유족, 한국고전번역원 등은 비교적 짚어져 있는 책을 내줬다.

책 표지에 쓰이는 제호는 한글 팬리그라피(손글씨) 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솔통 대표 강병인씨가 재능 기부로 참가했다.

이렇게 해서 책마다 5000권을 찍어

온라인에서 판권을 확보하고 있어

온라인에서 판권을 확보하고 있어